

닷타보 - 면·모 혼방 내의 등의 파스텔 컬러 소재 개발

닷타보(龍田紡)는 면 80%, 양모 20% 혼방사 “파나코트울(Pana Cot Wool)”을 개발하였다. 이 혼방사는 파스텔 컬러(pastel color : 안료분말에 백색가루 등을 섞어 안료의 강한 색을 부드럽고 연하게 조합한 색)로 염색할 수 있으며, 편포(編布)로 짜면 독특한 표정의 천이 된다. 여성용 이너나 어린이용 옷감으로 2004년 추동용으로 3~4t을 생산할 예정이다.

일반적으로 면·양모 혼방사는 면섬유의 딱지 때문에, 연한 색의 파스텔 컬러로 염색하면 깨끗한 천 위에 유난히 면 딱지가 눈에 잘 띄어 마치 먼지 등이 묻어 있는 것 같이 보여 고상하게 보이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데, 이런 때에는 면 딱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진한 색으로 염색하고 있다. 그런데 “파나코트울”을 솜 상태에서 면을 정련한 다음 양모와 혼방하므로 면 딱지가 없어 파스텔 컬러로 염색할 수가 있다. 또한 양모는 방축(防縮)울을 사용하고 있어 가정세탁도 가능하다. 지금은 20수 단사, 30수 단사를 주로 뽑고 있는데 40수 단사도 개발중이다. 닷타보는 이 소재가 호평을 받자, 용기를 얻어 면과 앙고라(angora), 캐시미어(cashmere), 약(yak) 등의 수모(獸毛) 혼방소재도 개발중이다.

저팬 크리에이션(Japan Creation) 전시회에도 이 소재를 출품하여 유명 어패럴 메이커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. ♣